

# 농촌 청소년이 지각한 농촌생활의식 · 생활스트레스 및 생활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도 안성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perceived rural life · daily life stress and life problem behavior of rural high school students

국립 한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조교수 이명숙

Dept. of Home Management, Hankyong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Lee, Myoung-Suk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relationship among the perceived rural life, daily life stress and life problem behavior of the rural adolescents. To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iew on rural life, daily life stress and the life problem behavior,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66 rural high school students, during the period between July 1 to 9 in 1998.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sex and the record influenced on the perceived rural life, daily life stress and life problem behavior.
2. There is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view on rural life and the daily life stress. And also, there i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aily life stress and the life problems behavior.

## I. 서 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 사회적 역할획득, 독립 과업 성취, 윤리적 체계 회복의 발달과업(유영주 외, 1990)을 수행하며, 인생에 있어서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할 중심 인물로 탈바꿈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 사회의 미래상을 예측해 보는 중요한 변인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청소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청소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청소년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대한가정학회, 1990). 첫번째 경향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적 과정, 발달적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개체발달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이다. 두번째 경향은 청소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령별주, 하위문화, 세대관계, 청소년운동 등을 기술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개인이나 청소년이 속한 환경 중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수연·정문자, 1997).

최근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가정관리학회지에 실린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분화, 자아상 및 적응과 같은 발달적 측면의 연구(이정숙, 1995; 이미숙, 1995; 이천숙·이희숙, 1997; 백양희·최외선, 1997; 이완정·이은영, 1998), 둘째, 스트레스, 문제행동 및 갈등에 관한 연구(김오남·김경신, 1994; 김경신, 1995; 이정숙 외, 1995; 이경희·김광웅, 1996; 최규련, 1996; 백양희·최외선, 1996, 1997; 김수연·정문자, 1997; 신효식·이경주, 1997; 정유미·김득성, 1998; 전귀연, 1998), 세째,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이경주·신효식, 1990; 김순옥, 1990; 송금희·김효심, 1993; 이금 외, 1994; 조은경·서병숙, 1994; 최외선 외, 1997), 네째, 가족체계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최연실, 1993; 전귀연·최보가, 1993, 1995; 이경주 외, 1997)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 역시 청소년들의 발달 및 환경에 관한 연구들로 대별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발달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이 강조되고 있다고는 해도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였다.

한편,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겪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제일 먼저 산업간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지역 간의 소득격차, 도농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계층이나 연령별 또는 성별에 따른 불균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김동일 외, 1982). 특히 산업간의 불

균형에 따른 지역 격차는 도시와 농촌으로 생활양식의 분리를 가져왔으며 심각한 이농현상에 의한 농촌문제를 야기시켰다. 산업화가 연령에 관계되는 불평등의 확대를 낳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청소년의 경우 사회인이 될 때까지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아야하므로 교육기간 자체가 길어져 사회의 중심적 위치에서 밀려난다. 더욱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로 인한 농촌 생활의 낙후는 중심적인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청·장년층을 도시로 이동하게 하였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비는 농촌의 재화로서 노동력과 함께 도시로 이동하였다. 도시, 농촌을 가릴 수 없는 높은 교육열 속에 농민들은 취학연령의 자녀들이 거주 마을의 초등학교를 마치고 읍내나 인근 도시의 중·고등학교만 진학해도 농가소득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하숙, 자취를 시키고 학습비를 전담해 왔다. 공부 잘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가축과 심지어 논밭까지 처분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조해 왔다. 농민들 가운데 이렇게 애써 교육을 시킨 자녀들이 농촌에 남기를 바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신용하·장경섭, 1996). 즉, 농촌환경 속에서의 청소년은 부모의 기대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는 이중의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가부장제와 남아선호 사상 등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부모세대와 다른 체험을 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부재라는 농촌의 현실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가족간의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농촌 청소년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일상적 스트레스 인자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부적응이 높아지고(이경주 외, 1997) 특히 가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정적 내면사회화가 이루어 진다(정영숙 외, 1999)는 연구를 볼 때 농촌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유발요인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을 완화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나 기술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부적응 행동, 일탈이나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농촌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보다 열악한 생활실태에 놓여 있다면, 그들의 생활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이로 인한 문제행동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환경인 농촌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무엇이며, 일상생활 중에 문제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증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자신들의 환경인 농촌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문제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 지도 및 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농촌 청소년들의 문제를 분석하므로써 농촌 청소년들에게 맞는 상담과 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촌생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농촌 청소년의 농촌생활의식

농촌 주민의 개인적 관심 영역의 우선 순위는 자녀에 관한 것(28%), 경제적인 것(24%)의 순으로, 지금까지 지적된 농촌 주민의 이농 경향의 원인이 소득 향상이나 자신의 직업 기회의 대비에도 있지만 더 나아가 자녀의 직업기회나 교육기회를 확보하려는데 있다(김동일 외, 1982). 따라서 농촌 청소년들 역시 부모의 기대에 따른 학업스트레스가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30세미만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에 대한 견해를 문의하여 본 결과 '힘드나 보람'에 응답한 비율이 37.1%, '매우 불편'이 25.8%, '최소한의 대가'가 19.1%, '매우 힘듦'이 12.4%로 나타났고(김성수 외, 1989), 미혼여성이 영농하는 농촌청소년과 결혼하기를 싫어하는 이유로는 '농촌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가 29.4%로 1순위를 나타냈다(최민호, 1989). 또한 여성들이 농촌을 싫어하는 이유는 노동의 과중, 소득이 낮음, 농업의 장래성이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김성수 외, 1989). 이러한 결과는 농촌 청소년들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2. 농촌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인간은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의 변화를 일으킨다. 과거보다도 생활스트레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에 스트레스가 만연해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병이 인간의 복지를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즉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환경이나 상황에서 평가하는 일상생활의 문제 거리가 해결 곤란하거나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과의 특정한 관계를 의미한다(이경주 외,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느끼는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의 스트레스는 청소년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발달적 특징에서 오는 신체적 변화와 정서발달의 불균형, 불안정감, 자아정체감 혼란 등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사회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기술, 분노감 조절 등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부적응을 일으키며 자살 충동까지 경험하게 된다.

김광일(1983)은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정신이 건강한 학생의 빈도는 46.31%에 불과하고 정신질환의 빈도가 31.05%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경계선 상태가 22.63%였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89%에 해당하는 학생이 한가지 이상의 적응상 곤란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장애문제와 관련된 공부문제가 가장 많고 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가족관계 중에서 가족원 간의 갈등이나 친밀도 등은 스트레스 증감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박종원(1982)은 청소년 정신장애 중 많은 비율이 부모나 가족관계의 갈등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가족관련스트레스와 친구관련스트레스는 부적응을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청소년은 또래와의 동조행위가 증가 되어가는 시기이며, 가족 또한 자녀의 발달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 훈련이 필요하고 가족간의 적절한 애정, 친밀감 등의 지지적인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학업관련, 교사관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신효식·이경주, 1996).

한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부모세대와는 다른 체험을 하고 있으며, 약화되어 가는 가족관계 속에서 과거와 같은 분명한 가치규범이나 역할 모형을 제시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급격히 변동되고 있는 사회의 가치체제가 혼란 되고 문화단절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가정, 학교, 친구집단 등 여러 사회기관이 제시하는 역할모형이 상치되어 농촌 청소년들에게 더욱 혼란스러움을 안겨주게 되었다. 그리고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을 아주 중시하는 농촌 가족체계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보다 더 많은 갈등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생각된다(최외선 외, 1997). 농촌 여고생들의 많은 수가 가벼운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모-자녀 유대관계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녀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자녀 유대관계보다 학교생활만족도, 선생님·친구관계와 같은 학교환경, 개인환경이 여고생의 우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농촌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에 용돈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친구관계, 건강상태, 가정분위기, 가정생활만족도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어 용돈·학교생활·친구관계·가정생활에 만족할 수록,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가정분위기는 화목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스트레스 수준, 용돈 만족도, 어머니 꾸중 정도, 담임과의 관계, 가정분위기, 아버지 꾸중정도, 건강상태,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친구관계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어 용돈·가정생활·학교생활·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아버지와 어머니 꾸중

은 안들을수록 담임과의 관계와 건강 상태는 좋을 수록, 가정분위기는 화목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백양희·최외선, 1996).

### 3. 농촌 청소년의 생활문제행동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성취하는 것인데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심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달과업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청년기의 자녀들은 자아정체감 확립, 형식조작적인 사고, 독립성 추구, 동료집단에 대한 소속,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노력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고자 하는 양가적인 감정 및 행동을 보인다. 청년기자녀와 부모간의 이러한 독립 의존의 동시추구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상호간에 기대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기대에 부합되는 반응이 뒤따르지 못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가 되기 쉽다(김순옥, 1990).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가족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불안, 열등감, 우울, 긴장 등이 유발되어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발전되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음주, 흡연, 약물중독, 성문제 등 청소년 비행으로 나타난다(김소야자, 1987). 특히, 욕구좌절에 대한 공격의 방향은 지역, 성별, 형제수, 출생순위, 가족형태, 부의 출신지역, 부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농촌에 비해 도시 청소년이 무별적 방향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외별적 방향은 낮고 무별적 방향이 매우 높아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공격적이고 남학생은 공격을 피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수와 출생순위, 가족형태는 공격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 부모의 출신지역, 부모의 연령, 부모의 직업은 공격의 방향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무별적 방향의 경향이 높아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송금희·김효심, 1993).

한편, 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서나 부적응 행동, 신경증적 장애 등은 청소년 자신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가족내부의 역동적 인간관계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전귀연·최보가, 1995). 가족원 사이에 심리적으로 유대가 적고 가족구성원들이 각기 따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변화에 적응적이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의 심리적 유대를 돈독히 하고 가족체계의 변화능력을 키워 나갈 것이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내적 문제 및 갈등·일탈행동과 가족·학교 생활에서의 문제를 대상으로 농촌 청소년들이 이들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 4. 농촌생활의식·생활스트레스와 생활문제행동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인지, 생활스트레스 및 생활문제행동을 관련지어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므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부적응과의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응답율로 지적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시키는 가족问题是 부부간, 고부간, 부모·자녀간 불화였다. 부부간의 갈등이 흔히 부모·자녀간 갈등, 형제간 갈등, 가족갈등으로 이어지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가정내에서 다른 가족성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므로 정서적 갈등으로 가득찬 분위기에서 불유쾌한 경험을 갖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가정밖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불화가 심한 가정의 아이들이 비행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청소년개발원, 1994). 정영숙 외(1999)의 연구에서도 가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청소년은 부정적 내면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주 외(1998)의 연구에서도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부적응이 높아지므로 부적인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을 완화할 수 있는 대처

기술이나 통제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선자 외(1998)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학업성적, 이성친구, 가치관 등이 주요 스트레스원이었고, 대처방법은 술·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업성적, 이성친구, 심리성격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음악듣기, 혼자생각하기 등 소극적 대처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특히 가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부적응 행동,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크며,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대처행동이 문제행동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농촌생활의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생활스트레스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생활문제 행동 지각은 어떠하며, 농촌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생활문제행동'에 관한 대화상대자는 누구인가.
- 〈연구문제 4〉 농촌생활의식·생활스트레스·생활문제행동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경기도 안성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1998년 4월 1일 '시'로 승격되었지만, 아직은 주민의 다수가 농축산업을 기본 생산단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농촌의 특색이 많은 면소재지에 위치한 2개의 종합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미회수 및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66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하였다. 설문조사

는 1998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개인 및 가족환경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환경적 특성

독립변인	구 분	빈도(%)
성 별 n=365	남 학 생	133(36.4)
	여 학 생	232(63.6)
부 연령 n=277	45세 미만	67(24.2)
	45세 이상 - 50세 미만	117(42.2)
	50세 이상	93(33.6)
부 학력 n=268	초졸-중증퇴	88(32.8)
	중졸-고증퇴	67(25.0)
	고졸이상	113(42.2)
부 직업 n=285	농 업	177(62.1)
	기 타	108(37.9)
모 연령 n=297	45세 미만	165(55.5)
	45세 이상 - 50세 미만	97(32.7)
	50세 이상	35(11.8)
모 학력 n=286	초졸-중증퇴	106(37.1)
	중졸-고증퇴	106(37.1)
	고졸이상	74(25.8)
모 직업 n=301	농 업	119(39.5)
	기 타	59(19.6)
	전업주부	123(40.9)
가족수 n=348	5명 미만	111(31.9)
	5명	111(31.9)
	6명 이상	126(36.2)
출생순위 n=342	첫 째	111(32.5)
	둘 째	115(33.6)
	세 째	79(23.1)
	네째이상	37(10.8)
희망교육 수준 n=342	고 졸	59(16.3)
	전문대졸	157(43.3)
	대졸이상	147(40.4)
학업성적 n=348	상	93(26.7)
	중	153(44.0)
	하	102(29.3)

\*무응답으로 계에 차이가 있음.

### 3. 척도구성

#### 1) 농촌생활의식

선행연구(공보처, 1996; 김성수, 1989)를 기초로 소속감 7문항, 영농의식 11문항, 총 18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타당도(요인분석)와 신뢰도(Cronbach's  $\alpha$ ) 검증을 통하여 소속감 5문항, 부정적 영농의식 6문항, 긍정적 영농의식 4문항을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다(<표 2>). 그러나 본 연구결과의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부정적 영농의식의 문항들을 역산하여 하나의 단일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농촌생활인지는 '소속감'과 '영농의식'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농촌생활이 긍정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 2) 생활스트레스

선행연구(백양희·최외선, 1996, 1997; 신효식·이경주, 1997)를 기초로 장래문제(요인 1), 자신감문제(요인 2), 학업문제(요인 3), 생활태도문제(요인 4), 가족문제(요인 5), 교우문제(요인 6)를 하위영역으로 하여 30문항을 구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타당도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 3) 생활문제행동

선행연구(이경희·김광웅, 1996)를 기초로 20가지의 일상생활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일탈행동(요인 1), 가족문제행동(요인 2), 학교문제행동(요인 3), 내적문제행동(요인 4)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들 문제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게 된다. 타당도와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 4. 자료분석

SPSS PC<sup>+</sup>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ANOVA(다중범위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 는 .05이다. 본문에 제시된 표상에 알파벳으로 표기), Pearson's correlation, 요

〈표 2〉 농촌생활의식의 타당도와 신뢰도

	factor 1	factor 2	factor 3
1. 나는 이동네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77		
2. 나는 우리 동네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76		
3. 이 동네는 나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76		
4. 나는 동네사람을 대부분 알고 있다.	.63		
5.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61		
6. 농업은 노동량에 비하여 소득이 적다.		.71	
7. 농촌은 소득수준이 낮다.		.70	
8. 농촌은 복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67	
9. 농촌은 장래성이 부족하다.		.66	
10. 농촌은 노동량이 너무 많아 힘들다.		.64	
11. 농업은 이런 아침부터 온종일 씻기는 직업이다.		.45	
12. 농업은 집과 토지가 있는 생활로서 안정적인 직업이다.			.82
13. 농업은 상사(윗사람)가 없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직업이다.			.66
14. 농업은 자연을 상대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59
15. 나는 우리동네에서 불편함이 없다.			.49
eigenvalue	3.71	2.48	1.31
cum pct	24.7	41.2	50.0
KMO of Sampling Adequacy		.80	
신뢰도(Cronbach's $\alpha$ )	.79	.71	.61
$\alpha = .75$			

〈표 3〉 생활스트레스의 타당도와 신뢰도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1.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않을까 두렵다.	.78					
2. 올바른 인생관이 확립되지 않아 초조하다.	.77					
3. 장래에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75					
4.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당황스럽다	.63					
5. 좋은 배우자를 만날지 의문이다.	.62					
6. 성적이 자꾸 떨어져 장래가 어둡게 느껴진다.	.49					
7.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긴다.		.75				
8. 열등감 때문에 다른사람 만나기 싫다.		.62				
9. 나는 항상 다른사람 뒤만 따라 다닌다.		.60				
10. 남과 얘기할 때 교양이 부족하다.		.51				
11.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영리하고 현명하다.		.51				
12. 실패나 모욕을 당할까봐 걱정이다.		.50				
13. 나 자신의 용모에 대해 자신이 없다.		.46				
14.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교과목이 있다.			.74			
15.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모르겠다.			.69			
16. 시험때가 되면 걱정이 되어 공부가 잘 안된다.			.65			
17. 수업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안된다.			.58			
18. 지나친 경쟁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싫다.			.55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19. 남앞에 의사표현을 충분히 못한다.				.77		
20. 친구와의 대화에 기술이 부족하다.				.69		
21. 성격이 우유부단하여 실천력이 부족하다.				.68		
22.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의욕이 약하다.				.67		
23. 가정사정이 복잡하여 집에 들어가기 싫다.					.84	
24. 다른 사람에게 부모님을 자랑할 점이 없다.					.77	
25. 가정에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가 많다.					.66	
26. 가족중에 나의 장래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없다.					.63	
27. 이성 및 성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74
28.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안된다.						.60
29. 인생의 길잡이가 될만한 대상이 없다.						.53
30. 다른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다.						.37
eigenvalue	9.86	2.40	1.96	1.34	1.12	1.02
cum pct	.29	.409	.474	.519	.556	.590
KMO of Sampling Adequacy					.92	
신뢰도(Cronbach's $\alpha$ )	.86	.81	.77	.81	.82	.72
				$\alpha = .93$		

&lt;표 4&gt; 생활문제행동의 타당도와 신뢰도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1. 본드, 부탄가스 흡입, 약물복용 등	.33			
2. 담배	.30			
3. 성문제 - 임신, 출산, 유산, 성병 등	.78			
4. 음란물 접촉 및 유흥업소 출입	.78			
5. 친구와 갈등, 폭력문제	.72			
6. 선후배와 갈등, 폭력문제	.71			
7. 술	.39			
8. 선생님과 갈등	.48			
9. 이성교제 문제	.40			
10. 가족/친척 문제		.82		
11. 부모와 갈등		.81		
12. 형제와 갈등		.77		
13. 가정의 경제 문제		.72		
14. 용돈 문제		.54		
15. 취업 문제			.84	
16. 전학 문제			.82	
17. 학업성적 문제			.68	
18. 심리/성격 문제				.83
19. 가치관 문제				.77
20. 신체/정신건강 문제				.66
eigenvalue	7.48	2.25	1.64	1.35
cum pct	.374	.487	.569	.636
KMO of Sampling Adequacy			.87	
신뢰도(Cronbach's $\alpha$ )	.90	.85	.77	.73
			.91	

인분석, 신뢰도(Cronbach'  $\alpha$ ) 검증을 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농촌생활의식(표 5)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남학생이며 부의 연령이 45세 미만이고, 부모님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학업성적이 중·상인 집단이 높았다. 영농의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수가 5명미만인

<표 5>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농촌생활의식

독립변인	구 분	소속감	영농의식	농촌생활의식
성별	남 학생	3.40	2.85	3.12
	여 학생	3.07	2.67	2.88
	t	3.22***	2.89**	3.47***
부연령	45세 미만	3.37 A	2.74	3.05
	45세이상-50세미만	3.35 A	2.72	3.05
	50세 이상	3.05 B	2.68	2.86
부직업	F	3.30*	.23	2.72
	농업	3.41	2.68	3.07
	기타	2.94	2.77	2.83
모직업	t	4.16***	1.38	3.24***
	농업	3.47 A	2.67	3.09
	기타	3.03 B	2.82	2.92
가족수	전업주부	3.13 B	2.73	2.93
	F	5.98**	1.45	2.43
	5명 미만	3.09	2.86 A	2.97
	5명	3.25	2.61 B	2.96
	6명 이상	3.26	2.72 B	2.99
	F	1.18	6.10***	.09
출생순위	첫째	3.15	2.77 A	2.96
	둘째	3.21	2.82 A	3.04
	세째	3.24	2.55 B	2.90
	네째이상	3.27	2.68 AB	2.97
학업성적	F	.20	3.90**	.93
	상	3.32 A	2.66	2.99 AB
	중	3.32 A	2.76	3.05 A
	하	2.91 B	2.76	2.83 B
	F	6.52**	1.14	3.69*

\*p<.05    \*\*p<.01    \*\*\*p<.001

집단이, 출생순위가 첫째와 둘째인 집단이 긍정적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농촌생활인지가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은 농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성인 경우 가사노동과 병행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김성수 외(1989)의 조사에서도 여성들이 농촌을 싫어하는 이유 중 첫번째가 '노동의 과중'이었다. 또한 아버지가 젊고,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며, 성적이 좋고, 가족수가 적고, 출생순위가 첫째나 둘째인 집단은 자신의 환경 및 물리적 조건에 대한 만족감이 반영되어 농촌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했을 것으로 유추 해석해 볼 수 있겠다.

##### 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생활스트레스(표 6)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농촌 청소년들의 생활스트레스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영역인 장래문제와 성적문제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농촌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벗어나고자 좀 더 자신의 장래문제와 성적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생산기반인 토지가 아들에게 상속되는, 아직은 도시보다 더 전통적인 농촌의 가족 가치관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내지는 당연시되는 사회현상과 복합적으로 얹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출생순위별로는 맏이의 스트레스 수준이 제일 높았고, 특히 생활태도문제, 가족문제, 교우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였다. 이는 농촌가족이 전통적 가치관을 아직 많이 유지하므로써 장자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서 연유한 결과로 보여진다.

희망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인 집단이 전문대졸이상인 집단보다 자신감문제와 가족문제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신에 대한 부족감과 부모의 기대에서 오는 갈등의 결과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섬총적인 면접조사를 통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lt;표 6&gt;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생활스트레스

독립변인	구 분	장래문제	자신감문제	학업문제	생활태도문제	가족문제	교우문제	생활스트레스
성 별	남 학생	3.10	2.69	3.31	3.11	2.44	2.53	2.91
	여 학생	3.33	2.64	3.50	3.00	2.38	2.77	2.93
	t	2.30*	.49	2.14*	1.23	.59	1.55	.26
부 학 력	초졸·중중퇴	3.30	2.59	3.35 B	3.07	2.44	2.96	2.95
	중졸·고중퇴	3.23	2.63	3.34 B	2.86	2.23	2.74	2.83
	고졸이상	3.34	2.70	3.66 A	3.08	2.38	2.88	3.00
	F	.31	.55	4.65**	1.66	.78	1.01	1.26
모 학 력	초졸·중중퇴	3.35	2.66	3.41	3.09	2.44	2.87 AB	2.95
	중졸·고중퇴	3.39	2.72	3.50	3.05	2.42	3.01 A	3.01
	고졸이상	3.16	2.59	3.53	2.96	2.28	2.66 B	2.88
	F	1.50	.69	.48	.45	.52	3.01*	.81
출생순위	첫 째	3.44	2.74	3.55	3.23 A	2.64 A	3.03 A	3.10 A
	둘 째	3.19	2.69	3.46	2.98 B	2.24 B	2.77 B	2.90 B
	세 째	3.11	2.53	3.36	2.89 B	2.25 B	2.61 B	2.78 B
	네째이상	3.19	2.52	3.26	2.97 B	2.32 AB	2.91 AB	2.79 B
	F	2.28	1.68	1.47	2.92*	3.41*	3.41*	4.22**
희망교육 수준	고 졸	3.24	2.93 A	3.42	3.20	2.80 A	2.92	3.08
	전문대졸	3.26	2.66 AB	3.47	3.00	2.31 B	2.81	2.90
	대학졸이상	3.25	2.56 B	3.40	3.04	2.34 B	2.80	2.90
	F	.01	4.86**	.21	1.20	5.00**	.33	1.57
학업성적	상	3.25	2.60 B	3.26 B	3.05	2.24 B	2.73 B	2.85 B
	중	3.17	2.59 B	3.37 B	2.98	2.31 B	2.75 B	2.85 B
	하	3.45	2.84 A	3.78 A	3.20	2.71 A	3.10 A	3.19 A
	F	2.78	4.04*	10.98***	1.93	6.14**	5.25**	9.02***

\*p&lt;.05    \*\*p&lt;.01    \*\*\*p&lt;.001

따른 농촌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업성적은 낮은 집단이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자신감문제, 학업문제, 가족문제, 교우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였다.

학업성적이 스트레스 요인임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백양희 외(1997)의 연구에서도 농촌이라는 사회문화가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업문제가 청소년 문제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적 포부 수준이 배움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부모들의 뜨

거운 교육열과 사회구조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농촌 청소년들의 방과후 지도 및 취미와 특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풍부히 제공될 때 학업스트레스는 많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했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집단이 교우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가 부모의 특성에 따라 간접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좀 더 구체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 3.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생활문제행동(표 7)

#### 1) 생활문제행동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갈등·일탈행동과 가족문제 행동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선자(1998)의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남학생은 술, 담배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여학생은 음악을 듣거나 혼자 생각하기와 같은 소극적 행동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행동지향적이며, 술·담배와 같은 것이 좀 더 허용적인 사회분위기와도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한편,

여학생은 장래문제와 학업문제에서의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높았는데, 생활문제행동에 있어서도 학업성적, 전학, 취업과 같은 학교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적 특성 중에서는 부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문제행동이 심각하게 인지되었고, 모연령은 낮은 집단에서 가족문제행동이 심각하게 인지되었다. 또한 모학력은 높은 집단에서 갈등·일탈행동과 학교문제행동이 심각한 것으로 인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특성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지나친 간섭 혹은 거부·무관심이 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영숙·고성혜

<표 7>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생활문제행동

독립변인	구 분	갈등·일탈행동	가족문제행동	학교문제행동	내적문제행동	생활문제행동
성 별	남학생	2.61	2.67	3.16	2.63	2.84
	여학생	2.18	2.42	3.45	2.58	2.63
	t	3.58***	2.39*	2.62**	.57	2.31*
부 학 力	초졸·중중퇴	2.32	2.55	3.17 B	2.56	2.64
	중졸·고중퇴	2.53	2.59	3.55 A	2.57	2.79
	고졸이상	2.32	2.46	3.51 A	2.60	2.75
	F	.94	.45	4.03*	.05	1.00
모 연 령	45세 미만	2.36	2.60 A	3.39	2.61	2.75 A
	45세 이상	2.39	2.50 AB	3.47	2.62	2.72 AB
	50세 미만	1.88	2.12 B	3.16	2.32	2.38 B
	50세 이상	2.83	3.78*	1.37	2.21	3.62*
	F					
모 학 력	초졸·중중퇴	2.13 B	2.43	3.19 B	2.52	2.56 B
	중졸·고중퇴	2.52 A	2.67	3.62 A	2.65	2.88 A
	고졸이상	2.44 AB	2.44	3.42 AB	2.61	2.72 AB
	F	3.53*	2.10	5.32**	.67	4.86**
희망교육 수준	고졸	2.73 A	2.72	3.38	2.70	2.92 A
	전문대졸	2.40 AB	2.50	3.31	2.61	2.73 AB
	대학졸이상	2.14 B	2.44	3.38	2.55	2.61 B
	F	5.83**	1.81	.21	.59	3.16*
학업성적	상	2.30	2.49	3.13 B	2.58	2.67
	중	2.36	2.55	3.34 AB	2.53	2.68
	하	2.36	2.54	3.61 A	2.73	2.82
	F	.09	.12	6.15**	1.86	1.26

\*p<.05    \*\*p<.01    \*\*\*p<.001

(1994)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어머니가 젊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를 많이 간섭하는 것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문제행동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 어머니가 젊고 학력이 높은 경우 자녀에 대한 많은 간섭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농촌 청소년들의 생활문제행동을 심각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희망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전문대 이상인 집단에 비해 갈등·일탈행동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진학을 포기한 농촌 청소년들의 지도에 각별한 관심이 주어져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성적이 낮은 집단이 학교문제행동을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이는 희망교육수준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써, 성적이 낮고 대학을 포기한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개발 및 실행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2) 생활문제행동에 관한 대화상대자(표 8)

농촌 청소년들의 영역별 생활문제행동에서 누구와 가장 대화하고 싶은지를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다. 그들은 가족문제행동과 학교문제행동을 제외하고 모든 문제를 친구와 가장 대화하고 싶어했고, 그 다음이 부모님, 그리고 약간의 일탈행동에서 상담가, 학교문제행동에 있어서는 교사를 들고 있다. 정근화(1984)의 연구에서도 가장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친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며, 부모나 스승 선배에게 상담을 할 수 있는지도가 있어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촌 청소년들에게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시킬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 스승, 전문가와

<표 8> 농촌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대화상대자 (%)

	1	2	3	4	5	6	7	무응답	계
본드·부탄	11.7	3.3	30.6	2.7	5.7	12.6	7.4	26.0	100
담배	11.5	4.6	42.1	2.2	3.0	6.6	5.7	24.3	100
성문제	19.7	3.0	29.5	1.4	1.6	14.8	7.9	22.1	100
음란물	11.7	3.6	37.2	2.7	3.6	8.5	8.2	24.6	100
친구 갈등	8.5	5.7	41.5	2.7	6.8	6.0	5.7	23.0	100
선후배 갈등	9.0	5.2	33.9	7.7	7.4	6.8	6.0	24.0	100
술	14.2	5.2	44.0	2.7	2.5	5.5	6.0	19.9	100
선생님 갈등	14.8	3.0	30.6	2.2	15.8	5.7	4.6	23.2	100
이성교제	10.9	7.7	45.6	3.8	.8	3.0	5.2	23.0	100
친척문제	37.2	6.3	19.7	.3	1.6	3.8	6.3	24.9	100
부모 갈등	27.6	8.7	25.4	1.1	1.9	4.9	5.2	25.1	100
형제 갈등	22.1	18.0	24.6	2.2	1.4	2.5	5.2	24.0	100
가정경제 갈등	38.0	6.6	18.0	.8	2.2	3.6	6.3	24.6	100
용돈	54.9	4.1	12.0	.8	1.9	1.4	4.4	20.5	100
취업	29.5	4.4	15.8	3.8	20.5	2.7	3.8	19.4	100
진학	27.0	4.4	15.0	4.6	21.3	2.5	4.1	21.0	100
성적	17.8	6.6	30.1	3.0	17.2	2.2	3.3	19.9	100
심리/성격	11.2	7.9	53.8	1.4	1.9	7.7	3.3	12.8	100
가치관	16.4	5.7	37.2	3.6	7.7	6.0	7.1	16.4	100
신체/정신건강	36.9	3.0	24.6	.5	1.6	9.6	4.4	19.4	100

\*1. 부모, 2. 형제, 3. 친구, 4. 선배, 5. 교사, 6. 상담전문가, 7. 기타

의 수용적인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함께하는 대화, 놀이, 학습을 위한 공동의 장과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 가까이에 그들의 공간에 마련되어야 한다.

#### 4. 농촌생활의식·생활스트레스·생활문제행동간의 관계(표 9)

농촌 청소년들의 농촌생활의식과 생활스트레스는 낮은 부적 상관( $r=-.20^{**}$ )을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소속감이 높을수록 장래문제( $r=-.23^{**}$ ), 학업문제( $r=-.16^*$ ), 가족문제( $r=-.22^{**}$ )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았고, 영농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장래문제( $r=-.20^{**}$ ), 학업문제( $r=-.19^*$ ) 스트레스도 낮았다.

농촌 청소년들의 생활스트레스는 생활문제행동과 정적 상관( $r=.44^{**}$ )을 나타냈다. 즉 생활스트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활문제행동도 심각해졌다. 특히 가족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갈등·일탈

행동( $r=.24^{**}$ )과 가족문제행동( $r=.50^{**}$ )이 심각한 것으로 인지된다.

농촌생활의식과 생활문제행동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인 농촌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일수록 생활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며, 생활스트레스가 클수록 생활문제행동도 심각하게 인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농촌의 높은 교육열과 그에 못미치는 교육환경 속에서 농촌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종합감과 불안정성의 유형은 어떠한지 조사분석을 통해 실증적 자료를 얻고, 이를 통해 농촌 청소년들의 상담과지도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표 9> 농촌생활의식·생활스트레스·생활문제행동간의 관계

	소속감	영농의식	농촌생활의식	장래문제	자신감문제	학업문제	생활태도문제	가족문제	교우문제	생활스트레스	갈등일탈행동	가족문제행동	학교문제행동	내적문제행동	생활문제행동
소 속 감	1.0														
영 농 의 식	.20**	1.0													
농촌생활의식	.89**	.61**	1.0												
장 래 문 제	-.23**	-.20**	-.28**	1.0											
자 신 감 문 제	-.10	-.03	-.09	.52**	1.0										
학 업 문 제	-.16*	-.19*	-.21**	.63**	.50**	1.0									
생활태도문제	-.07	-.01	-.07	.43**	.68**	.34**	1.0								
가 족 문 제	-.22**	-.04	-.20*	.35**	.43**	.30**	.39**	1.0							
교 우 문 제	-.07	.00	-.05	.51**	.64**	.41**	.57**	.50**	1.0						
생활스트레스	-.19*	-.10	-.20*	.76**	.82**	.69**	.75**	.68**	.80**	1.0					
갈등일탈행동	-.12	.00	.10	.07	.18**	.03	.18*	.24**	.08	.18*	1.0				
가족문제행동	-.01	-.09	-.05	.23**	.24**	.08	.19*	.50**	.23**	.34**	.53**	1.0			
학교문제행동	-.09	-.13	-.13	.45**	.22**	.39**	.15*	.18*	.22**	.36**	.30**	.32**	1.0		
내적문제행동	-.12	-.04	-.12	.37**	.43**	.21**	.35**	.37**	.34**	.46**	.38**	.47**	.32**	1.0	
생활문제행동	-.02	-.08	-.05	.37**	.35**	.23**	.29**	.43**	.29**	.44**	.77**	.79**	.66**	.71**	1.0

\* $p<.01$     \*\* $p<.001$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촌 청소년들의 농촌생활인지, 생활스트레스 및 생활문제행동을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들 변인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고, 36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 PC<sup>+</sup>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생활인지, 생활스트레스 및 생활문제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촌 청소년의 특성은 성별과 학업성격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농촌생활인지가 부정적이며 장래문제와 학교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또한 학교문제행동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으로 인한 여성노동의 이중부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가족돌보기와 더불어 농업노동에의 참여가 농촌 여성에게는 매우 힘겨운 조건이며, 이는 여성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써 농촌 총각의 혼인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중적인 농촌 여성 노동문제의 해결은 농촌문제의 부분적 과제라고 보여진다.

농촌 청소년 역시 학업과 장래문제에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는 농촌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중압감이 될 것이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고 또한 진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신감문제 및 전반적인 생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 청소년의 상담과 지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문제점을 시사한다. 더우기 희망교육수준이 낮은 집단과 남학생집단에서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생활스트레스에서 보여준 결과를 더 한층 확신시켜 주고 있다. 즉, 농촌 청소년의

학업과 장래문제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농촌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진다.

둘째, 농촌생활인지와 생활스트레스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문제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심각성에 가족문제스트레스가 가장 큰 관련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발달과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이다. 또한 희망하는 대화상대자를 친구 및 부모의 순으로 지적하였는데, 청소년의 대화를 친구보다는 좀 더 가족 속으로 이끌수 있는 가족환경과 교사 및 상담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안성지역에 국한하여 조사되었으므로 농촌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량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보다 심충적인 농촌 청소년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제한적이 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심충적인 면접조사에 의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1) 고정자(1992). 청소년의 흡연지식과 흡연태도가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2호, 37-49.
- 2) 공보처(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조사.
- 3) 김갑숙(1991). 학교에서의 고등학생의 공격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13-26.
- 4) 김경신(1995).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인지, 대처 및 디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1호, 12-25.
- 5) 김광일 외(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신건강연구* 제1권, 1-39.
- 6) 김동일 외(1982).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 7) 김성수 외(1989). 농어촌여성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사단법인 가정문제 상담소.
- 8) 김수연 · 정문자(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3호, 181-192.
- 8) 김순옥(1990).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및 이에 대한 가족구조변인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8권 1호, 143-156.
- 9) 김오남·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3호, 105-119.
- 10) 김진숙·유영주(1985). 어머니와 청년기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1호, 77-91.
- 11) 김희경·이정숙(1993). 임상교육심리학. 교문사.
- 12) 대한가정학회(1990). 가족·아동학연구
- 13) 문화체육부(1995). 청소년백서.
- 14) 박종원(1982). 청소년 정신장애 환자의 생활사건에 관한 일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1권, 587-594.
- 15) 백양희·최외선(1996). 농촌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학가정학회지 제34권 1호, 33-47.
- 16) 백양희·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6호, 71-86.
- 17) 백양희·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2호, 33-47.
- 18) 송금희·김효심(1993).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내외통제성과 욕구좌절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1호, 67-79.
- 19) 신용하·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 20) 신효식·이경주(1997). 십대자녀가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5호, 131-140.
- 21) 이경주·신효식(1990). 청년기 자녀의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8권 2호, 1-13.
- 22) 이경주·신효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4호, 15-26.
- 23) 이경희·김광웅(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6호, 127-139.
- 24) 이정덕(1991).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변화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203-221.
- 25) 이금 외(199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2호, 16-25.
- 26) 이미숙(1995). 현대 한국가족의 핵가족화 및 가치관 변화와 청소년 발달간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2호, 1-10.
- 27) 이완정 외(1998).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4호, 125-138.
- 28) 이정숙 외(1995). 청년기 자녀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1호, 199-206.
- 29) 이영숙·고성혜(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
- 30) 이천숙 외(1997).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3호, 101-113.
- 31) 장근화(1984). 남녀고교생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 연구-전남 광주시를 중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2호, 1-20.
- 32) 전귀연 외(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3호, 157-173.
- 33) 전귀연 외(1995).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1호, 99-113.
- 34)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3호, 87-103.
- 35) 정유미 외(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3호, 31-45.
- 36) 조은경·서병숙(1994). 부모·청소년자녀간의 대

- 인거리·심리적거리·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1호, 104-116.
- 37)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1호, 147-160.
- 38) 최민호 외(1989). 농촌청년의 육성을 위한 교육과 결혼의 문제. 사단법인 가정문제상담소.
- 39)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1호, 159-175.
- 40) 최외선 외(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우울성 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4호, 27-40.